光日春秋

임 동 욱

40년전 野 대통령 후보 선정과 오늘

1967년 2월 7일은 현대 한국정치사에서 많지 않은 아름다운 날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이 날은 당시 백낙준, 유진오, 윤보선, 그리고 이범석 등 야당의 거목 4인이 회담을 통해 신한당과 민중당을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통합하여 신민당을 창당할 것을 합의하고, 통합신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윤보선을 선출한 날이다.

당시 야당의 거목들, 특히 백낙준 박사의 삶을 민족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경우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 종결 후 백낙준 박사가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보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명력이 여전한 구절들이 있다.

"...(전략)...이제 국민제위의 절대적 지원과 신한·민중 양당 수뇌부와 당원 제위의 협력과 재야유지(在野有志)의 독려가 집중하는 가운데 내가 야당통합운동을 추진하는 4인 회의에 참여하여 미성을 이바지할 수 있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 통합이 완성됨에 있어 국민제위와 같이 이 기적적 성과를 경하한다...(중략).... 내 비록 적은 존재이나 평생을 지켜온 초당적 정신으로 국가민족에 보답하려는 정성은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음을 국민 여러분에게 고(告)하는 바이다."

성명서에 내포되어 있는 통합, 영광, 기적적 성과, 보답하려는 정성 등은 세월의 변화와 무관하게 정치인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이자 정신이다. 우선 의사결정과정에서 반기를 들거나 심지어 뛰쳐나가는 세력 없이 대립하는 의견들을 통합하고 수렴해 나가는 정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 정성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현실 정치판의 유력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정성을 다할 때 의사결정의 결과들은 기적적인 성과가 되고, 이것이 바로 조국과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된다.

집권을 바라는 정치인에게 현실은 일종의 전쟁일 수밖에 없으니 다툼은 필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정치는 더욱 통합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 치열하게 다투고 난 뒤에 상흔을 치유하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게 흘러가야 국가와 국민에게 울림이 있고 감동을 주는 정치가 가능해진다. 집권을 해야 한다는 욕심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들은 다양하기에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서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립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삶을 대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잣대나 방식이 상이하면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이 와중에서 조국과 민족에 보답하려는 정치인의 정성에 기초한 통합의 마술이 발휘되어 다툼의 결과물이 하나의 기적으로 여겨지는 순간 국민은 감동을 받고 울림이 있는 정치가 가능해진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경선 룰을 둘러싼 유력 대선후보간의 다툼이 봉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찜찜했던 이유도 감동과 울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벼랑 끝까지 가버린 대치가 아름다운 타협으로 결말이 난 것 같은데, 여전히 위태로워 보이는 것 또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론만 보고서는 누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박근혜 전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둘 다 서로 자기가 양보했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둘 다 양보한 것이 사실이라도 상대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울림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앞으로 있을 야당의 대선후보 결정과정이 5년 전 당시 광주경선을 시발점으로 한 '노무현 돌풍'과 같은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 잠정적으로 후보등록 기한으로 정한 6월 9일까지 예정된 후보들이 다 등록하더라도, 그 이후 진정 '아름다운 경선'이 되려면 여러 장애와 예상되는 다툼이 잘 봉합되어야 한다.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부문은 후보검증과 여론조사이다. 공교롭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후보검증은 박근혜 전대표가 여론조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칼을 잡고 있고, 상대방은 칼날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로가 겨누고 있는 칼과 칼날이 분리되지 않은 채 갈무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후보는 물론 후보에 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연후 바른 대선후보를 제대로 선택함으로써 온 나라에 울림과 감동이 있는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충주대 행정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최 경 순

트레비 분수와 한줄기 눈물 샘

이제 뜨거웠던 5월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27년.

제대로 된 안장의식도 없이 쓰레기 치우듯이 묻혔던 5·18민주유공자들이 구 망월동 묘역에서 신 국립묘지로 이장된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5·18국립민주묘지에 매년 60만 명 이상의 많은 참배객이 다녀갔지만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역사의 문 지하에 사진전시실이 있다. 하지만 단순한 기록물 전시실에 불과하였다. 방문객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쉬웠다.

이러한 아쉬운 마음은 지난 14일 5·18추모관이 개관됨으로써 말끔히 사라졌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민주영령을 추모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객관적 진실을 복원·기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해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자 5·18추모관이 건립됐다.

개관 후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관람객들의 숙연한 반응에 안내자들도 함께 숙연해진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당시 사망자의 영정으로 채워진 '침묵의 길'로 들어서면서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종교의식을 갖추고 들어서는 어르신.

매일 태엽을 감아야 움직였던 시계는 주인의 죽음으로 27년 전에 멈춰선 태엽시계.

80년5월의 허름한 구멍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적힌 낡은 포스터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많은 전시물 중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장소 중 으뜸은 단연 물 위에 촛불을 띄워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줄기 눈물' 코너이다.

며칠 전부터 이 '한줄기 눈물' 수조에 동전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마치 트레비 분수를 향해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지는 형상이었다. 트레비란 뜻은 3번, 삼발이, 식탁용 삼각대의 의미가 있다는데…

첫 번째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고, 두 번째 동전을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세 번째 동전을 던지면 사랑하는 이와 깨진다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너무 많은 욕심을 경계함이 담겨있지 않나 싶다.

관람객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한줄기 눈물 수조에 동전을 던지는 것일까?

지나간 영혼들을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적극적인 장소로 으뜸임에 틀림없다.

어린이 관람객의 관심을 끄는 곳은 동영상으로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전자방명록 코너다.

많은 어린이가 이 공간에서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추모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남아있는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보살피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겠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시설관리과장〉

기 고

김 수 정

전라도 명품쌀 경기미 능가한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은 경기미라 부른다. 그중에서도 이천쌀은 경기미 중에도 상전으로 값도 값이지만 없어서 못 파는 명품 쌀인 셈이다.

강원도 철원에는 오대미란 쌀이 있다. 일조 수량이 부족하고 조생 품종이고 보면 미질이 상품에 속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모 분유회사의 광고로 오염되지 않은 비무장지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프리미엄으로 비싼 값으로 팔리는 신흥 명품쌀이 된 셈이다.

해마다 이때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브랜드쌀 품평회가 열린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고의 명품쌀을 선정하는 것이다. 생긴 것도 살피고 밥맛 검사까지 거친 후에 최고의 명품쌀 12종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작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체 12개 명품쌀 중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이 1등을 차지하는 등 전남지역 쌀이 절반에 가까운 5개 브랜드가 명품쌀 반열에 올랐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 쌀은 단 한 곳도 들지 못했고 경기미도 단 2개만이 끼어있을 뿐이다.

이 정도면 전남지역 쌀이 경기지역 쌀에 비해 한 두수 위인 셈이지만 아직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염시설도 없고 깨끗한 농업용수와 풍부한 일조수량, 비옥한 토양 등 최적의 조건 속에서 생산된 우리지역 쌀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비자의 인식에 강하게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과거에 전라도 쌀은 이모작으로 보리농사와 함께 재배하다 보니 미질이 떨어지고 통일벼 위주의 재배관행으로 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놓은 때문이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지역 쌀이 강원지역 쌀 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할까.

대안은 친환경농업뿐이다. 청정한 전라도지역 천혜의 조건으로 재포장 하는 것이다.

이제는 농업도 양과 질을 따지던 시대에서 소비자의 감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

우리는 평생 2등기업인 크라운맥주가 천연암반수를 무기로 들고 나온 하이트맥주 하나로 하루아침에 맥주업계를 재패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명품쌀 가꾸기로 전라도 쌀의 자존심을 되찾고 FTA파고를 뛰어넘어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화순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일본 여행중 만난 한국 수학여행단 에티켓 제로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는데 수학 여행을 온 한국 한생들로 인해 상당히 불편했다. 식당에서 소란스럽게 떠드는가 하면 잔뜩 음식을 가져왔다가 먹지도 않고 남겨둔 채 나가기 일쑤였다.

한 테이블도 아닌 여러 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니 종업원들도 무척 당황스러운 듯 치우는데 애를 먹는 것 같았다. 그나마 가이드가 "음식을 다 먹은 뒤 나무젓가락을 빈 종이에 끼워두면 종업원이 식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치워 간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상당수 학생들이 무시했다. 이 때문에 종업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고 테이블을 정리하지 않았고 뒤늦게 식당을 찾았다가 자리가 없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외국 여행 중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식사 예절같은 기본적인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오수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기초질서 안지키는 어른들,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아이들에게 "무단횡단 하지 말라" "휴지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차량 통행이 없으면 빨간 신호에도 무단 횡단하고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어른들이 많다.

며칠전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무단 횡단을 하며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아이는 "엄마, 왜 어른들은 그냥 건너가"하고 물어봤는데, 대답하기 힘들었다.

"이 세상에는 색상을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단다"라고 한 것이 고작이었다.

운전을 하다가 한손을 들고 씩씩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어른들이 왜그리 많은 걸까. 자녀와 무의식적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부모들의 경우 아이들도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단횡단, 담배꽁초 투기, 침뱉기 등 굳이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기초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어른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 설

한미 FTA 농업보완책 실효성 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농업 부문 보완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한미 FTA 농업부분 보완대책안'은 고령농이 농사일을 그만 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전업농은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을 구조조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려운 농가를 위해 돈을 풀어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경쟁력을 갖춘 농업 부문을 살리는 등 농촌 회생대책 없이 금전적 보상만으로 해결하려는 땜질식 처방에 그친 느낌이다. 농사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금전적 지원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구나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품목별 소득직불제가 점차 농가 단위 소득직불제로 통합되고 고령농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 게 뻔한데 그 이후 농촌은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한미 FTA로 농업 부문이 입을 피해액은 협정 발효 후 5년차에 4천400여억원 그리고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완료되는 15년 차에는 최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막대한 피해를 보전하려면 매년 수 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하지만, 날로 피폐해지는 농촌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수 없지 않은가. 소득보전이나 폐업지원 등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농촌을 회생시킬 수 없다. 정부는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새로운 소득원 개발은 물론 교육, 복지, 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형식적' 혁신 방관만 할 건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장 장관은 30일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일부 기관들이 혁신을 형식적·타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예산처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리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무사안일과 비효율, 무책임 등은 관행처럼 굳어졌다. 방만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등과 함께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오죽하면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이 '혁신세미나'를 핑계로 이과수 폭포 등 남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국민적 공분을 샀겠는가.

문제의 심각성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데 있다. 장 장관 스스로 공공기관들이 혁신에 대한 주체성이나 책임감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지 않고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서비스의 수요자는 국민이다. 국민들은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세금을 흥청망청 써가며 자기들 잇속이나 챙겨서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해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조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근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비효율과 비능률은 우리뿐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일본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과감한 민영화와 독립법인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이뤄냈다.

우리도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 없는 공공기관 혁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흔히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지 않는가.

無 等 鼓

지방세 수입

지방세는 문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구분된다.

우리나라 전체 조세수입의 80%는 국세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75%를 사용하고 나머지 25%를 기초자치단체가 나눠 쓴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가 거론됐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인 지방세제 개편이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일선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지방세를 거둬 공무원들 봉급도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이 수두룩하다. 기업이 적고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전남 지역 지자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기업이 입주해 있어 그나마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전남 동부지역 일부 지자체들도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보다 338억원이 줄어든 332억원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광양시에 납부했다. 1년 예산의 10%를 넘는 액수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 광양시는 추경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GS칼텍스 등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업체가 위치해 있는 여수시 역시 지방세 납부 실적 부진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영업 이익을 많이 올려야 해당 지자체 재정도 튼튼해지기 마련이다. 앞으로 광양시나 여수시가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의 경기 전망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